

호서학인 조극선의 일기를 통해 본 상극(相剋)과 상생(相生)의 경계

김학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부교수, 조선시대사 전공

ksoya@aks.ac.kr

- I. 머리말
 - II. 16~17세기 주자학자의 승려관:
조극선의 승려관 이해를 위한 몇 가지 사례
 - III. 조극선의 불교 친화적 환경과 조건:
승려라는 인간과 사암(寺庵)이라는 공간
 - IV. 조극선과 승려: 일상에서 펼쳐지는 상극과 상생의 경계와 접점
 - V. 맺음말
-

I. 머리말

조선왕조의 설계자들은 문치주의(文治主義)에 바탕한 유교국가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네 집단을 장악·통제하는 정책을 입안했고, 그것은 왕조 말기까지 지속적으로 적용되었다. 그 네 집단은 ‘승려’·‘여성’·‘중인’·‘서얼’이었는데, 특히 승려는 승유억불이라는 정치이념적 틀 속에서 강도 높은 통제의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다면 그런 선언적 표방의 실상은 충분히 논증되었는가?

그렇지 않다. 승유억불은 강력한 선언임에는 분명했지만 그것의 효용성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인간에 따라 결을 달리했고, 또 그것의 구체적 해명을 위해서는 하나의 대표성을 지닌 사례를 포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17세기 호서[德山] 출신의 학자·관료 조극선(1595~1658)의 일기를 분석하여 이를 해명하고자 하며, 제도과 이념이라는 도식적 담론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펼쳐지는 ‘유(儒)와 불(佛)의 다채로운 삶의 양상을 추적함으로써 상극과 공존이 교차했던 그들의 관계를 포착, 진단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핵심 텍스트는 조극선의 일기 『인재일록』(1609~1623)과 『야곡일록』(1624~1635)이다. 조극선이 15세 되던 1609년부터 1635년까지 26년 동안의 일상을 적은 이들 일기의 주된 관심사 중의 하나가 승려에 대한 시선과 인식이라는 점에서 17세기 유불관계를 해명할 수 있는 많은 정보와 단서를 담고 있다.

조극선은 외양상 승려를 멸시하고, 그들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을 매우 수치스럽게 여기지만 때로는 그들을 동정하고, 때로는 도움을 구하기도

※ 이 논문은 2021년 한국학중앙연구원 공동연구과제 “타자에 대한 시선과 대화: 교유와 논쟁을 통해 본 관계의 문화사”의 일환으로 수행됨(AKSR2021-C16).

한다. 멸시의 대상을 유자들의 학습처인 서당의 강장(講長)으로 고용한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며, '유무상통(有無相通)'에 입각하여 유불이 교역 및 거래를 서슴지 않는 것은 또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조극선과 그 주변의 유자들은 때로 순종하지 않는 승려들의 행태에 분개해하면서도 놀이와 잔치를 매개로 빈번하게 교류했고, 유불이 혼음(混飮)·동숙(同宿)하는 장면에서는 유불의 차별성을 대입하기 어렵다. 이것이 양자간 일상적 관계성의 실상이다.

조극선의 승려에 대한 태도에는 우월감이 넘쳐 흐른다. 그것은 조극선 개인의 자질 및 역량에 기초하는 수월성(秀越性)에 기반하기보다는 '주자학의 나라'라는 생득적(生得的) 이념의 환경이 그런 우월성의 담보장치가 되어 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우월성을 타자(승려)에 대한 무관심 또한 결별의 수단으로 삼지 않는다. 그는 승려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은 거부했지만 승려를 가르치는 것에는 관대했다. 조극선은 고향 덕산을 중심으로 수 십 명의 문인을 양성했는데, 그 중에는 다수의 승려가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쌍욱(雙旭)이라는 승려는 교육의 열성 및 교육 내용에 있어 어느 유자에게도 손색이 없는 수준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념의 판도는 '유자'와 '불자'를 대척점에 위치시켜 놓고, 또 대척의 삶을 강요하였지만 그것은 구상일 뿐이었다. 양자는 갈등과 대립을 반복하면서도 서로를 대화와 협력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 어떤 측면에서 그들은 유자와 불자라는 '서로 다름'보다는 덕산이라는 공간과 17세기 초반이라는 시간을 공유했던 인간으로서의 '동질성'이 더 큰 전제일 수 있었다. 이 글은 이런 의문에서 비롯되었고, 그 결론은 이에 대한 선명한 해명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II. 16~17세기 주자학자의 승려관: 조극선의 승려관 이해를 위한 몇 가지 사례

조극선의¹ 승려인식을 보다 선명하게 착상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례와의 대비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오희문(吳希文, 1539~1613)의 『쇄미록(瑣尾錄)』, 김영(金垿, 1577~1641)의 『계암일록(溪巖日錄)』을 비교의 대상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오희문의 『쇄미록』은 전란기 근기권 사대부의 승려관이 잘 드러나 있고, 김영의 『계암일록』은 조극선과 거의 동시대를 살았지만 지역·학과·정파를 달리했던 인물의 일기라는 점에서 자료적 상대성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또한 전자는 성혼(成渾)의 우계학(牛溪學)을 수용한 근기지역 서인계열(소론계), 후자는 이황(李滉)의 퇴계학(退溪學)을 계승한 영남지역 남인계열이라는 점에서 지역·학과·정파적 성격에 있어 상호 차별성이 있어 비교 검토에 있어 양질의 표본이 된다.

먼저 『쇄미록』에 나타나는 오희문의 승려관은 친연성(親緣性)에 바탕한 대화와 동정(同情), 소극적 경계의 양태로 규정할 수 있다. 피란이라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불교적 인프라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성이 있었던 현실적 처지가 친연성을 수반하는 이유가 된 측면도 있다. 그럼에도 오희문의 내면에는 유자적 정체성에서 비롯된 소극적 견제의식이 작동하고 있었고, 그들로부터의 지원에 위로를 받고 또 사의를 표하면서도 간헐적 분노 또한 자제하지 못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1 조극선의 가계 및 학자·관료적 성향에 대해서는 김학수, 「17세기 호서의 지성 冶谷 趙克善」, 『조선시대 아산지역의 유학자들』(2)(지영사, 2010); 김학수, 「조극선의 일기를 통해 본 17세기 지식인의 사제관: 숨김과 드러냄」, 『장서각』 38(2017); 김학수, 「17세기 사대부의 지식문화기반의 구축과 활용: 趙克善의 『忍齋日錄』·『冶谷日錄』에 나타난 지식정보의 획득 및 활용양상」, 『영남학』 76(2021) 참조.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발발 초기 오희문에게 사찰은 주된 피난처였는데, 장수(長水)의 석천암(釋天菴, 釋天寺)·서남사(西南寺) 등이 그 대표적 공간이었다. 이 과정에서 승려는 동정의 대상이기도 했고, 음식을 대접하는 은인이기도 했으며, 무료함을 달래주는 벗이기도 했다.

① 오후에 석천암의 중 성운(性雲)과 현각(玄覺)이 골짜기에 숨어 있다가 숲을 헤치고 고개를 넘어 우리가 있는 곳으로 찾아왔는데, 사정이 딱했다.²

② 어제 낮에는 무료함이 너무 심해서 아우와 함께 국사암(國師庵) 앞으로 걸어가서 암자 중을 불러내 냇가 모정(茅亭)에 가서 함께 이야기하다가 해가 기울어서야 돌아왔다.³

또한 그는 다급한 상황만큼이나 현실적 이해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했다. 1592년 7월 22일 오희문은 본인 소유의 노비(羌福)로서 승려(尙玄)가 된 인물을 수소문하는 꿈을 꾸게 된다.

밤사이 목천 조영연(趙瑩然)과 그 아우를 꿈에서 보았는데, 완연히 지난날과 같았다. 그런데 꿈 속에 어떤 중이 함께 있었다. 내가 ‘중 상현(尙玄)은 지금 승천사(勝天寺)에 있는가?’라고 묻자 그는 모른다고 했다. 이는 무슨 조짐인가 상현의 속명은 강복(羌福)이다. 본래 직산(稷山)에 살면서 신공을 바치던 노비였는데, 5~6년 전에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다. 목천의 승천사에 있다고 들은 적이 있어서 그렇게 물은 것이다. 그의 아버지는 막동(莫同)이고, 그의 동생은 내 아들인 윤겸(允謙) 소유의 사내중이다.⁴

2 吳希文, 『瑣尾錄』, 1592年 7月 3日.

3 吳希文, 『瑣尾錄』, 1593年 8月 9日.

4 吳希文, 『瑣尾錄』, 1592年 7月 22日.

이로부터 약 3년 뒤인 1595년 4월 10일 오희문은 연산의 고운사(孤雲寺)에서 주지승 현원(玄源)을 통해 강북(상현)의 동정을 파악하게 된다.

날이 이미 저물어 진잠(鎭岑)까지 갈 수 없는 형편이라 하는 수 없이 연산 고운사로 들어갔다. 고운사는 남방의 큰 절인데, 난리 이후로 관역에 시달려 중들이 매우 적고 빈방도 많았다. 주지승 현원은 본래 안성의 청룡사(靑龍寺)에 있었다. 내 농막과 거리가 멀지 않으니, 전에는 알지 못했지만 듣고 나서는 그 또한 잘 대우해 주었다. [...] 현원 대사를 통해 중 상현이 지금 천안 유려왕사(留麗王寺)에 있다고 들었다. 중 상현은 바로 내 사내중으로 본래 직산에 살다가 신역(身役)을 피해 중이 되었다. 전에는 목천의 승천사에 있다가 지금 유려왕사로 옮긴 것이다. 속명은 강북이다. 훗날 그 절에 물으면 추쇄(推刷)할 수 있겠다.⁵

동정에 대한 파악은 추쇄라는 법적, 경제적 논리로 전환되고 있다. 노비제 사회에서 오희문의 고려는 지극히 당연한 판단이다. 이처럼 그는 승려를 적대시하거나 멸시하지는 않았지만 당연한 권리 앞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오희문의 주자학적 근본의식은 흥불(興佛)의 조짐에 긴장감을 더하게 했다. 1593년 11월 16일 오희문은 보광사(普光寺)의 주지 신변으로부터 흥불의 기미를 간파하고 우려를 표한다. 그 내용은 명나라에서 주도하여 8도에 양종(兩宗), 즉 선종(禪宗)·교종(敎宗)을 아울러 총 16개의 사찰을 새로 건립한다는 것이었고, 그 이면에는 사찰을 통해 군대 및 부역을 조달하려는 전략이 깔려 있었다.

5 吳希文, 『瑣尾錄』, 1595年 4月 10日.

새 주지가 어제 도착했는데, 이름은 신변(信辯)으로 본래 안성 청룡사에 있었다고 한다. 신변 선사가 '이제부터 명나라 장수의 말에 따라 8도에 양종, 즉 선종과 교종을 합하여 총 16개의 절을 세운다고 합니다'고 했다. [...] 이는 필시 중들을 유지시켜 군대와 부역에 보내는 일을 모두 이들로 하여금 담당하게 해서 숨거나 누락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함일 것이다. 그러나 법을 마련하면 폐단도 생기기 마련이다. 중들이 이를 빙자하여 세력을 만들고 제멋대로 해서 제어하기 어려워져 이로 말미암아 부처를 믿는 조짐이 생겨날까 심히 우려스럽다.⁶

승려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전제한 상태에서 그들과의 친화는 모색할 수 있지만 불세(佛勢)의 확장은 용인할 수 없었던 것이 오희문의 불교 및 승려관의 본질이었던 것이다.

오희문이 승려에 대해 친화적이고 공존적 태도를 보였다면 지금 언급할 김영의 태도는 고압적이면서도 강한 공격성을 드러낸다. 그에게 있어 사찰 및 승려는 경멸의 대상이자 여행 및 유숙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는 사역자일 뿐이었다.

『계암일록』에 따르면, 김영이 유람(遊覽)·유숙(留宿)·회집(會集) 등의 용도로 찾은 사찰은 부석사(浮石寺, 영주), 명암사(鳴巖寺, 예안), 봉정사(鳳停寺, 안동), 개목사(開目寺, 안동), 현사사(玄沙寺, 안동), 신록사(神勒寺, 여주), 봉은사(奉恩寺, 서울), 용수사(龍壽寺, 예안), 각화사(覺華寺, 봉화), 축서사(鷲棲寺, 봉화), 연대사(蓮臺寺, 예안), 주왕사(周王寺, 청송), 선찰사(仙刹寺, 안동), 영명사(永明寺, 평양) 등 10여개 처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그는 여러 승려를 만났지만 『계암일록』에는 덕장(德藏, 부석사), 현홍(文弘, 용수사), 지영(智永, 도리사), 태성(泰成, 연대사), 계안(戒安, 연대사), 도수(道修, 선찰

6 吳希文, 『瑣尾錄』, 1593年 11月 6日.

사), 지순(智淳, 각화사) 등 소수의 기록만 나타난다.

『계암일록』은 1603년(선조 36) 7월부터 1641년(인조 19) 3월까지 약 37년 9개월간의 일기인데, 사찰 방문 및 승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나타나는 것은 1603년(27세)부터 1619년(43세) 7월까지 약 16년에 불과하다. 즉 그는 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까지 틈틈이 절을 왕래했을 뿐 40대 중반부터는 사찰 걸음을 끊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김영은 사찰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자신의 시선을 유자, 특히 주자학적 인식의 틀 속에서 이념적 무장을 강화한다. 그가 주목했던 것은 사찰의 공간적 아름다움이나 조형미가 아니라 선유(先儒: 李滉)·선인(先人: 金富倫) 등 주자학적 인간의 자취였다.⁷ 제영(題詠)이나 제명첩(題名帖)에 비상한 관심을 표방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특히 그는 퇴계학파라는 학문적 진영논리에 빠져 이황의 필적이나 시액(詩額)을 발견하면 그것의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하는데 매우 익숙해져 있었다. 예컨대, 봉정사 전방에 위치한 수락대(水落臺)의 의미를 이황과 결부시켜 설명하는 대목에서는 퇴계학에 대한 연원 의식이 고집스럽게 투영되어 있었다. 이것은 그의 큰 장점인 동시에 시야의 협착을 초래하는 이념적 가림막일 수도 있었다.

봉정사의 동쪽 위에 있는 방에 절구(絶句) 두 수가 판에 새겨져 있는데, 곧 퇴계 선생께서 지은 것이다. 절 문 밖 2리 쯤 되는 곳에는 나무가 우거진 골짜기가 깊고 고요한데, 흰 물이 푸른 바위 위에서 쏟아지고 맑은 소리가 찰찰거렸다. 선생이 이름 짓기를 수락대라고 했다. 이 깊은 산 속에 조그마한 땅이 대현(大賢, 이황)을 만난 것으로 인하여 묻혀서 없어지지 않고 모두 수락대가 있음을 알게 되었으니 이 어찌 우연이겠는가!⁸

7 金垠, 『溪巖日錄』, 1604年 10月 27日.

8 金垠, 『溪巖日錄』, 1617年 4月 6日.

김영의 불교관은 승유억불이라는 조선왕조의 정치이념적 근본주의에 바탕한다. 그에게 불교는 배척과 비판, 승려는 멸시와 사역의 대상으로 고착되어 있었다. 1605년(선조 38) 2월 1일 여주 신록사에서 피력한 '대장각기(大藏閣記)'를 새긴 비석에 대한 소회는 불교를 이단시했던 자신의 이념적 좌표를 천명하는 과정이었고, 비문을 찬술한 이색(李穡)에 대한 조소 및 비난적 어투에는 주자학적 우월의식이 진하게 묻어난다.

비문은 목은 이색이 지었고, 글씨는 한수(韓脩)가 썼으며, 비석의 후면에는 시주한 사람들의 이름을 새겨 놓았는데, 조정의 사대부와 부녀자에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명확하게 다 알아 볼 수 없었다. 이 비석에 충효(忠孝)와 현덕(賢德)의 공업을 기록하게 했더라면 장차 길이 불후의 이름을 드리울텐데, 단지 쓸데없는 비용을 들여 귀천과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조리 이름을 실어 놓았으니, 고려시대에 이교(異敎)를 숭상했음을 알 수 있었다. 비문이 청아(淸雅)하고 교묘했는데, 목은 또한 인간 세상의 사람이니, 어찌 시속의 추향(趨向)을 붙좃지 않았겠는가?

유람 또는 회합 목적으로 사찰을 방문할 때 승려들에게 음식 제공 및 제반 잡역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시 되었다. 그에게 사찰은 언제든지 활용이 가능한 편의 제공처였고, 중은 임의로 부릴 수 있는 사역의 대상일 뿐이었다. 용수사의 종각 위에서 술자리를 겸한 시회(詩會)를 연 것을 '멋진 일'로 자평하는 대목에서는 종교적 무례함이 간취된다.

① 중을 시켜 꽃과 대를 꽃아 놓게 했더니, 붉고 푸른색이 서로 빛나 하늘거리는 모습이 사랑스러웠다. [...] 저녁에는 중들을 시켜 징과 북을 치게 하고 구경하였다.¹⁰

9 金垠, 『溪巖日錄』, 1605年 2月 1日.

② 중들에게 밥을 지으라 하여 먹은 뒤에 두루 돌아보았다.¹¹

③ 오시에 상주형(尙州兄)과 사수가 이르러 종각 위에 벌여 앉아 가져온 술로 저녁이 끝날 때까지 단란하게 술에 취하기도 하고 시를 짓기도 하였으니, 또한 멋진 일이라고 할만하다.¹²

무엇보다 자신의 방문을 마중하지 않은 승려를 바닥에 내동댕이치고도 그쯤에서 그친 것을 관서(寬恕)함으로 치부하는 장면은 호강성(豪強性)에 바탕한 고압적 불교관의 극단을 보여준다.

각화사에 도착할 때 째 되니 절의 중이 나와서 맞아주질 않으니, 어리석고 미련한 놈은 벌을 받아 마땅하다. 잡아서 언 마당에 내동댕이 쳐주었다가 한참 만에 용서해주었다.¹³

그렇다고 김영이 승려와의 교류를 전면 차단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허교(許交)의 대상은 일정한 학문적 소양을 갖추었거나 자신이 알고 싶은 정보를 지닌 승려로 한정되었다. 일종의 철저한 ‘선택적 교류’였고, 여기서 그는 이(利)에 따르는 종래의 그답지 않은 모습을 드러내고 만다.

① 용수사의 승려 문홍(文弘)이란 자가 약간 글을 알아 경망(景望) 어른이 운자를 불러주며 시를 짓게 했는데, 나도 화답하여 주었다.¹⁴

② 서운암(棲雲庵)의 승려 지순(智淳)이 각화산에 왔었는데, 그는 글을 조금 알았으므로 그의 시에 차운해 준 것이 있다.¹⁵

10 金垓, 『溪巖日錄』, 1604年 3月 11日.

11 金垓, 『溪巖日錄』, 1615年 7月 3日.

12 金垓, 『溪巖日錄』, 1605年 4月 9日.

13 金垓, 『溪巖日錄』, 1618年 1月 27日.

14 金垓, 『溪巖日錄』, 1605年 4月 9日.

1608년 5월 17일 김영은 지영(智永)이라는 승려의 만남 요청을 흔쾌하게 받아들였다. 당시 지영은 선산 도리사에서 기거하고 있었다. 김영이 그를 환대할 것은 승려라는 신분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지영은 본래 전라도 동복현(同福縣)의 서리 정몽린(鄭夢麟)의 아들이었다. 동복은 김영의 부친 김부륜(金富倫, 1531~1598)이 1585년(선조 18)부터 1590년까지 현감으로 재직한 곳으로 약 5년 재임 동안 그는 향교의 중수, 8백여 권에 이르는 서적의 구입, 학령(學令)의 제정 등 흥학에 힘쓰는 한편 협선루(挾仙樓)·염류헌(淹留軒)·포월정(抱月亭)의 건립 등 지역사회의 학술·문화기반을 확충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했다. 이 과정에서 김영 또한 1585년부터 1589년까지 약 4년을 동복에서 지냈다. 이런 정황을 고려할 때, 김영에게 동복은 선친의 치적이 남은 고을인 동시에 유년기의 추억이 깃든 고향에 버금가는 타향이었던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그는 몸소 문밖으로 나가서 맞이할 만큼 지영의 방문을 환대했다. 평소 승려와의 관계에서는 예상조차 할 수 없었던 과격적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지영이라는 승려가 나를 만나보고 싶다고 했다. 그는 ‘저는 복천(동북) 관아의 서리 정몽린의 자식입니다. 경자년(1600)에 군역을 피해 중이 되었는데, 지금은 선산 냉산(冷山)의 도리사에 기거하고 있습니다’고 했다. 내가 비록 그를 자세히 알지는 못했지만 기쁘게 나가서 맞이했다.¹⁶

지영은 김영이 알고 싶어 하고, 듣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김부륜이 건립한 향교·협선루·염류헌 등 교육·휴식

15 金垓, 『溪巖日錄』, 1610年 閏3月 24日.

16 金垓, 『溪巖日錄』, 1608年 5月 17日.

공간이 전란의 와중에서도 잘 보존되었고, 훼손을 면치 못한 포월정(抱月亭) 역시 현민(縣民)들이 공조하여 중수하려는 계획이 있음을 전했다. 무엇보다 고을 백성들이 아직도 김부륵이 끼친 은덕에 감탄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¹⁷ 김영은 물밑 듯한 효사지감(孝思之感)에 가슴 뭉클해 했다. 그 감동은 지영을 종일토록 붙잡아두고 대화를 나누며 밥을 대접하는 등 갖은 환대를 베푸는 이유가 되었다.

중과 마주하여 종일토록 이야기하고 밥을 먹었다. 대개 이 중은 저자거리에서 물건을 교역하는 일로 방잠에 와서 잠시 머문다고 했다.¹⁸

대상의 차이는 태도의 변화를 수반했다. 1610년 윤3월 9일 봉화 축서사를 찾은 김영은 사찰과 승려에 대한 인상을 아래와 같이 직설한다.

축서사에 이르니 금당과 석불이 있는데, 절은 낡고 중은 우둔하였다.¹⁹

언어폭력에 가까울 만큼 그의 표현은 비하를 넘어 잔인함에 근접하고 있다. 불교 및 승려를 바라보는 김영의 경멸적 시각은 이 표현에 응축되어 있었던 것이다.

17 金垓, 『溪巖日錄』, 1608年 5月 17日.

18 金垓, 『溪巖日錄』, 1608年 5月 17日.

19 金垓, 『溪巖日錄』, 1610年 閏3月 9日.

Ⅲ. 조극선의 불교 친화적 환경과 조건: 승려라는 인간과 사암(寺庵)이라는 공간

조극선은 자신의 일기 『야곡일록』의 경오년(1630) 모두(冒頭)에 아래의 사연을 보기(補記)했다. 아버지 조경진(趙景璉, 1565~1639)의 사례를 인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대변(代辯)의 형식을 빈 자의식의 표출로 읽힌다.

아버지[조경진]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길, '을해년(1575) 11세 때 조부[조곤(趙鵬)]의 상을 당했는데, 선인(趙興武)께서 나를 몹시 사랑하여 이로부터 구두를 때는 공부를 시작했다. 지영(智瑩)이라는 승려가 있어 갓 공부를 시작한 어린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100인에 가까운 문도를 거느렸다. 선인께서 그를 초암(草庵)으로 초빙해서는 나를 가르치게 하고 싶어 하셨으나 나는 승려를 스승으로 삼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끝내 따르지 않고 전공(全有亨)에게 학업을 청했다. 매일 과정이 있었고, 비록 큰 비나 큰 눈이 내려도 조금도 게으름이 없이 반드시 문하에 나아가 배움을 청했다.²⁰

1630년(인조 8)은 조극선이 36세 되던 해이고, 이전까지 그가 승려들과 매우 친화적인 관계를 유지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일기 '1630년 조 모두(冒頭)'에 지면을 특별히 설정하여 아버지로부터의 전언을 기술한 까닭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해명을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필자는 이를 '변명'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그것은 친불(親佛)을 넘어 사실상 승려를 동반적 존재로 위치시켜 왔던 자신의 삶에 대한

20 趙克善, 『冶谷日錄』, 〈庚午年冒頭〉(1630). "大人嘗自言 乙亥年十一歲時 遭王父喪 以先人鍾愛 自是以後 始就句讀學 有僧智瑩 教授初學小子 率徒數十百人 先人爲迎致于草庵 欲使余受誨 余恥以僧人爲師 終不肯從 遂請業于全公 日有課程 雖大雨大雪 未嘗敢怠 必踵門請學"

변명이었다. 1630년을 전후한 시기에 이런 변명을 내놓은 것은 이 시기를 기점으로 자신의 유학자적 지위가 상승하고 관료적 위상 또한 격상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극선은 당대의 주류 학자 및 관료로 행신(行身)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친불적 성향을 은폐 또는 희석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인데, 위의 기사는 그런 의지의 의도된 표현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위의 기사를 조극선 및 그 일가의 대 불교 및 승려관의 가늠자로 삼는 것은 실상에 대한 오도 내지 호도의 위험성을 수반한다.

표1과 표2는 『인재일록』·『야곡일록』을 통해 조극선의 관계망 속에 존재했던 승려 및 사찰·암자를 정리한 것이다. 승려의 경우 70명을 웃돌고, 사찰 또한 50개소를 상회하고 있다.

표1-조극선과 관련을 지닌 승려: 교유 및 상견

僧侶 (71인)	正明·克敏·守玄·學勳·太玉·玄守·學徽·太玉·道軒·惠照·琢玉·徽雲·胡悅·彥定·大振· 雙明·惠鑑·徽印·海正·性修·忠鑑·法心·瞿談·惠照·妙焯·智禪·義英·瞿墨·處峯·元規· 德和·義潛·處玉·天印·戒敏·天賚·妙海·得海·天真·天寶·勝一·德和·戒元·德融·道允· 性修·一雲·信安·斗天·惠澄·太鑑·聖恩·心悅·天真·雙旭·世浩·德善·徽雲·戒海·天元· 得香·義一·雙俊·天覺·海寬·冲彥·雪熙·淨元·義守·思允·胡密
-------------	--

표2-조극선과 관련을 지닌 사찰과 암자: 독서·유숙·왕래·교유 등

寺 (38개소)	伽耶寺_修德寺_淵寺_龍鳳寺_鳳鳴寺_大寺_磨手寺_問良寺_國祠堂寺_安心寺(高山)_靈 臺寺_瓦寺_能仁寺_龍鳳寺_安心寺_新房寺_安谷寺_阜蘭寺_道泉寺_池方寺_尼寺_元堂 寺_麟莚寺_講堂寺_大蓮寺(大興)_西林寺_地藏坊寺_東神寺_元庵寺_雲庵寺_報恩寺 (京)_靈藏寺(京)_禾谷寺_神勒寺_佛成寺_普覺寺_雲谷寺_龍洞寺
菴 (13개소)	草庵_歸義菴_日照庵_什菴_鳳鳴庵_元庵_雲庵_淨水庵_兜率庵_隱寂庵_元庵_玉岫庵_ 古龍庵

저녁이 되기 전에 아버님을 모시고 자익(子翼)을 방문하였다. 어둑할 때 귀의암(歸義庵)으로 돌아왔다. -과하고 돌아오다가 송정(松亭)에 이르러 집안

소식을 물었다. 자익의 집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밥을 먹고는 어둑할 때에 돌아왔다. 자익 형제가 산길에서 전송하였다. 귀의암은 지금 묵고 있는 사찰에 내가 붙인 이름이다.²¹

사찰의 경우 가야사(伽倻寺)·간량사(間良寺)·용봉사(龍鳳寺)·초암(草菴)·귀의암(歸義菴)·일조암(日照庵)·집암(什菴) 등은 상시적 왕래·독서처였으며, 특히 귀의암은 자신이 22세 되던 1616년에 명명한 것이었다.

IV. 조극선과 승려:

일상에서 펼쳐지는 상극과 상생의 경계와 접점

1. '서당'이란 배움공간 속의 유불: 생활 및 지식문화적 공유지대로서의 서당

조극선은 '덕산'이라는 향촌공동체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사창 등 갖은 공간에서, 학업·잔치 등 다양한 용무를 통해 승려들과 접촉했지만 그 교섭의 면면을 가장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공간 가운데 하나는 '서당'이라는 교육 시설이었다.

이 서당은 사람이 발론하고 관의 협조를 받아 건립한 관립 서당이었고, 그 소재는 조극선의 주거지가 있던 덕산현 내야면(內也面) 대지리(大旨里) 또는 정문동(旌門洞) 일대로 추정된다. 『인재일록』의 '서당에서 잤다(宿于書堂)'라는²² 기사에 비추어 볼 때, 수학기에 조극선 주변에는 복수의 서당이

21 趙克善, 『忍齋日錄』, 1616年 12月 25日. “向夕 陪父主訪子翼 暝 歸歸義庵【罷歸至松亭 問家信 入子翼家 飲且食 乘暝而返 子翼兄弟 將之于山路 歸義庵 余名所寓寺也】”

22 趙克善, 『忍齋日錄』, 1611年 1月 11日.

운영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여기서 언급하고자 하는 서당은 1616년 (광해군 8) 조극선의 부친 조정진 등 내야면 일대 유림들이 덕산현감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건립한 교육시설이었다.

① 첫째 형과 함께 아버님을 모시고 서당을 만들기로 약속한 사람들과 구룡보(九龍洑)에서 모였다. -신백(申伯)·송신국(宋信國)·김덕송(金德崇)·정사신(鄭思信)·고방준(高邦俊)·고정준(高廷俊) 및 김충례(金忠禮)·김충지(金忠智) 씨와 함께 서당을 만들기로 약속하였는데, 지금 모여서 술 마시며 논의를 정하고자 하여 말을 보내왔다. 나도 부르기에 아버님을 모시고 갔다.²³

② 첫째 형도 와서 논의하였는데 서당을 짓는 일 때문이었다. 아버님과 숙부님이 이들과 함께 가서 서당 지을 자리를 살피고 돌아왔다.²⁴

③ 수령이 들에서 와서 서당 터를 살폈다. 정사신 혼자 유사(有司)로서 응대하였는데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명하였다고 한다.²⁵

터의 물색을 비롯하여 상량식 등 제반 절차에 관민 공조로 이루어졌고, 이런 과정을 거쳐 다음 해인 1617년 2~3월 무렵 완공을 보게 되었다.

① 아버님을 모시고 새로 마련한 서당 터에 갔다. 오늘이 서당 상량일(上樑日)이라, 유사(有司)의 초청으로 간 것이다. 정사신·김덕송·고방준·인방길(印邦吉)·김주정(金周鼎) 및 첫째 형이 술을 가지고 모여 있었다. 자리 잡고 앉아 술자리를 차렸다. 김좌수는 뒤늦게 도착하였고 조별감도 뒤따라 왔다. 저녁 무렵에 김천령(金千齡)도 들렀다가 술자리에 참여하였다.²⁶

23 趙克善, 『忍齋日錄』, 1616年 4月 9日. “與一兄陪父主 與約書堂人 會于九龍洑 【與申伯·宋先達信國·金德崇·鄭思信·高邦俊·廷俊及金忠禮·忠智氏 約爲書堂 今將會飲以定議 送馬且邀余 故陪行】”

24 趙克善, 『忍齋日錄』, 1616年 7月 17日.

25 趙克善, 『忍齋日錄』, 1616年 7月 18日.

② 창정(倉井) 숙부(叔父)와 첫째 형을 비롯하여 김충지·고정준·신백이 모였다. 서당 완공에 관한 일을 다시 의논하였다.²⁷

당시 덕산현감이었던 한이겸(韓履謙)²⁸이 서당 준공을 격려하기 위한 방문을 기획하고²⁹, 생도들에게 직접 유교 텍스트를 강론할 만큼³⁰ 이 서당은 관의 적극적 지원과 관심 속에 덕산의 중요한 교육시설의 하나로 자리하게 된다.

서당에서 잤다. -서당이 이미 완성되어 사람들이 함께 그곳에 거처한다. 인인선(印仁瑄)과 김하정(金夏鼎)이 함께 지내던 중 대진(大眞)·혜감(惠鑑)과 함께 술을 사와서 초대하기에 함께 갔다. 술을 마시고 잤다.³¹

위 인용문에서 주목할 대상은 승려이다. 유교 교육기관에서 등장하는 승려의 존재가 자못 이채롭게 착상된다면, 그것은 사료의 충분한 검토에 기반하지 않는 역사적 안목의 빈곤이다. 요컨대, 이 서당은 ‘유불공영(儒佛共營)’의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즉, 운영의 주도권은 유자들이 갖고, 관리 및 운영은 승려가 주관하는 형태였던 것이다. 그렇다고 유불을 철저한 주종관계로 규정할 수 없는데, 그런 근거는 서당의 학장(學長)이 승려라는 사실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사람과 관의 협모를 통한 건립’, ‘유자와 승려의 공조적 운영’, ‘유자 교육을 승려가 주관하는 시스템’이 이 서당 성립 및 운영의 골격이었던 것이다. 조극선의 『인재일록』 및 『야곡일록』은 그 운영의 체험적 실상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26 趙克善, 『忍齋日錄』, 1616年 8月 10日.

27 趙克善, 『忍齋日錄』, 1617年 2月 26日.

28 韓履謙은 광해군 때 좌의정을 지낸 韓孝純의 아들로 복인계에 속한다.

29 趙克善, 『忍齋日錄』, 1617年 5月 8日.

30 趙克善, 『忍齋日錄』, 1618年 4月 12日.

31 趙克善, 『忍齋日錄』, 1617年 4月 5日.

승려의 서당으로의 유입 현상은 조극선 일기의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① 일운상인(一雲上人)이 찾아왔다. 예전에 가야산에서 지내던 사람인데, 지금 서당에 있기를 원하였다.³²

② 묘순(妙淳)은 자익의 외숙으로 본래 대흥(大興)의 서당에 거처했는데, 이번에 태수(太守)가 이 지방의 중을 조사했기 때문에 가야사에 들어갔다. 그러므로 와서 이곳 서당에 들어오기를 원하였다.³³

유입 승려 중에는 단순히 거소(居所)의 이동을 추구한 이가 있고, 피역적 성격을 지닌 경우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인용문②는 복수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묘순(조극선의 벗 정자익(鄭子翼)의 외숙)과 조극선의 간접적 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일부 승려는 지인의 인척이란 사실, 묘순의 직전 거소가 대흥현(大興縣) 소재 어느 서당이었다는 점은 승려의 서당 배속이 보편화 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

서당이 낙성된 지 약 반년이 지난 1617년 11월 승려 정명(正明)이 학장으로 부임함으로써 ‘조경진-정명’의 이원적 훈육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① 나는 둘째 형 및 자익·덕이·자명과 함께 돌아오다가 서당에 들러 쉬었다. 인인선·김구정·신철 및 여러 학도들이 모두 모여 책을 읽고 있었다. 학장인 중 정명은 이미 이곳으로 거처를 정한 상태였다.³⁴

② 아버님을 모시고 돌아오다가 서당에 들렀다. 여러 자제가 아버님께 수업을 받았다. 오후에 모시고 돌아왔다.³⁵

32 趙克善, 『忍齋日錄』, 1617年 6月 15日. “有一雲上人進見 舊居伽山者 今願書堂”

33 趙克善, 『忍齋日錄』, 1617年 9月 4日. “妙淳 子翼外叔也 本居大興書堂 今者 太守以土僧刷入伽倻 故來願入此書堂也”

34 趙克善, 『忍齋日錄』, 1617年 11月 16日.

35 趙克善, 『忍齋日錄』, 1617年 12月 7日.

③ 잠시 뒤 하직하고 돌아오는 길에 서당에 들렀다. 아버님이 서당에 있기에 들어가서 뵈었더니 인인선 등 학도의 수가 매우 많았다.³⁶

승려 정명의 학문적 소양이 어느 정도였고, 그가 유생들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쳤는지는 자세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는 1623년(인조 1) 3월 26일 사망할 때까지 약 6년 4개월 동안 학장으로 재직하며 서당의 교육을 관장했다. 그가 사망했을 때 조극선이 깊은 애도를 표명하고, 일부 유생들 또한 ‘행소예법(行素禮法)’을 갖춘 것에서³⁷ 그의 사적(師的) 지위를 감지할 수 있다.

일운·묘순의 서당 배속에서 정명의 학장 취임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 속에서 대진·휘인·혜김·처봉·원규·세호·언정 등의 승려가 배속되어 서당의 관리 및 유생들의 학업을 보조하게 된다. 서당에 관여했던 유불의 인적 구성은 위의 서술 및 1619년(광해군 11) 조극선 집안 혼사 때의 부조명단에서 추출해 볼 수 있다.

표3- 조극선 집안 혼례시 부조 현황[1619년 4월 27일]

서당유생 부조자 -각 쌀(白米) 1斗-	- 印悅·印好宣·印善觀·印孝宣·印珖·劉晃·金義立 - 印義宣·金九鼎·金效伋·俞得民·俞縉·印汝柏 - 河弘源·崔永龍·鄭哲男·金江
승려 부조자 -각 누룩(麴子) 1圓-	- 妙淳·徽印·徽雲·胡悅 - 處峯·大眞·義盈

그렇다면 서당에서의 유불은 어떤 관계를 유지했고, 그것이 갖는 사회적 의미는 무엇일까? 조극선의 사례에 한정하더라도 우선 유자는 승려를

36 趙克善, 『忍齋日錄』, 1618年 2月 12日.

37 趙克善, 『忍齋日錄』, 1623年 3月 26日. “朝印汝松·汝栢·義宣·禮宣自書堂來言 學長正明禪師 今日死 殊甚悲憐 [...] 子瞻·子衡曾受學於明師之故 行素”

사역의 대상으로 인식했고, 유자를 향한 승려의 식사 및 술의 대접, 증물(贈物) 행위도 관례화되어 있었다. 이것은 분명 수직적 관계였고, 승유억불 사회가 발산하는 자연스런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사역은 명지(名紙: 試券紙)의 제작, 가옥의 수리, 여행시의 수종(隨從), 제책(製冊) 작업, 송진의 채취, 보리 수확, 벌목 작업 등 대부분 사사로운 것이었고, 이에 따른 승려들의 반발이나 항의 등 별다른 부작용은 수반되지 않았다.

① 서당의 중 혜감을 불러서 명지를 재단하는 전판(剪板)을 손보게 하였다.³⁸

② 첫째 형 집은 오늘 지붕에 기와를 이는데, 서당 중에게 일을 시키고 있었다.³⁹

③ 지금 서당의 중을 불러서 현에 들어가 조좌수를 보았는데, 한복일은 지금 서산(瑞山)에 갔다.⁴⁰

④ 서당의 중을 불러 백지를 잘라 책을 만들다 보니 이미 어둡해졌다.⁴¹

⑤ 나는 올라와서 사람을 보내 서당 승려를 시켜 송진을 따게 하였다.⁴²

⑥ 이날 사람을 고용하고 또 서당의 승려를 불러 보리(大麥)를 거두었다.⁴³

⑦ 암자의 중 6인이 벤 나무를 싣고 와서 종일 공사를 하여 토담집을 지었다. 나는 또 서당의 중 원규(元規)를 불러서 김첨지의 소(牛) 및 우리 집의 말을 빌려 고산(高山)에 보냈다.⁴⁴

38 趙克善, 『忍齋日錄』, 1617年 6月 22日. “召書堂僧惠鑑 治裁名楮剪板”

39 趙克善, 『忍齋日錄』, 1618年 9月 22日. “一兄家 今日蓋瓦其屋 役書堂僧也”

40 趙克善, 『忍齋日錄』, 1619年 5月 19日. “今則借書堂僧人 入縣 見趙座首 則韓復一今往瑞山矣 地主方挈眷在京 蓋欲不歸也”

41 趙克善, 『忍齋日錄』, 1620年 3月 12日. “召書堂僧 白紙剪割作卷 已暝”

42 趙克善, 『忍齋日錄』, 1621年 4月 19日. “余上來 送人書堂使僧摘松脂”

43 趙克善, 『忍齋日錄』, 1621年 5月 2日. “是日傭人 且召書堂僧 收大麥”

44 趙克善, 『忍齋日錄』, 1621年 10月 24日. “是日 [...] 庵僧六人斫木載來 終日爲役 以作土室 余且召書堂僧元規 而借金僉知牛及吾家馬 送高山 抵書于龍溪”

승려 중에는 특별한 재능을 지닌 경우가 있었는데, 휘인(徽印)이 바로 그런 존재였다. 조극선은 휘인을 장승(匠僧)으로 지칭했는데, 그는 관(棺)의 제작 및 묘소 조성에 능숙한 장례 분야의 전문 기능인이었던 셈이다.

① 겸선(兼善)을 서당에 보내서 장승 휘인에게 나무를 베어 깎아서 관을 만들게 했다.⁴⁵

② 죽은 아우 겸선을 초빈(草殯)하였다. [...] 초빈한 곳이 서당에서 마주 보이는 곳이므로 두 암자의 중들이 모두 와서 일을 하였다. 벼짚을 많이 쌓아서 땅 기운이 침투하지 않게 하였다.⁴⁶

음식의 제공은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한 보상이 주어지기도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특례일 뿐 대부분은 무상으로 제공되었다. 이런 무상성(無償性)은 향후에 있을 청탁의 예비비적 성격을 띄고 있었다.

정오 무렵 서당에서 돌아왔다. -비에 막혀 머물렀다. 중들이 식사를 제공하기에 내가 손님들을 위해 쌀 2되[升]와 콩 2되[升]로 보답하였다.⁴⁷

45 趙克善, 『忍齋日錄』, 1621年 10月 13日. “乃遣兼善往書堂 使匠僧徽印 伐木鑿之爲棺 盖拘於俗忌 不買眞棺也”

46 趙克善, 『忍齋日錄』, 1621年 12月 28日. “亡弟草殯 [...] 草殯 卽書堂相對之處 兩庵僧輩 皆來爲役 多積藁草 使地氣不侵”

47 趙克善, 『忍齋日錄』, 1619年 10月 22日. “午 自書堂返 阻雨留 僧輩供食 余爲客 以米二升·太二升償之”

표4-승려의 음식 제공 및 贈物 현황

승려의 선물 증정	· 술과 밥 제공	<18년 3월 28일>
	· 술 제공	<20년 8월 15일>
	· 農笠: 大眞	<20년 5월 19일>
	· 生薑·燈油 등 증정: 徽印	<24년 3월 11일>
	· 썩 증정: 徽印	<24년 4월 26일>
	· 딸감 및 綠豆 증정: 妙淳/大眞	<24년 4월 14일>
	· 신발 선물: 大眞	<25년 9월 04일>
	· 서울행에 따른 신발 제공: 妙淳	<28년 3월 05일>
	· 路資 및 신발 제공: 庵僧	<28년 3월 09일>
	· 기타: 채소/과일/부채 등	

예컨대, 1624년(인조 2) 관에서 묘순을 가야사로 이송 조치하려 했을 때 서당의 유생들이 진정서를 올려 그 부당함을 탄원하고⁴⁸, 1628년 승역(僧役) 해결을 위해 조경진이 수령과의 담판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⁴⁹ 이를 반증한다.

일상적 사역 및 술과 음식의 대접으로 대변되는 수직적 관계성은 유자들 에 대한 잠재적 공포의식으로 파급된 측면도 있었다. 이런 정황은 1618년 11월 서당의 유생 인의선(印義宣)의 ‘행인 구타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서당의 중들이 지레 겁을 먹고 潰散(潰散)한 것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아버님이 현(縣)에 들어갔다가 왔다. 저녁에 서당에서 잤는데, 인공(印公)이 행인을 때려서 다 죽게 되었으므로 서당의 중들이 흩어져 도망갔다. 아버님이 고을로 들어가 지주(地主)에게 말하고 친히 서당으로 가서 진정시켰다.⁵⁰

48 趙克善, 『冶谷日錄』, 1624년 4월 24日. “地主方督送本鄉僧于伽倻寺 妙淳上人亦被侵督 請于二兄 以諸儒士名書呈單字而得情 淳師今以其單字來謁 止善終日應對於此 夕歸宿書堂”

49 趙克善, 『冶谷日錄』, 1628년 5월 17日. “大人入縣返 將行 季父來見而去 盖以地主不知書堂 官造之由 欲加僧役 以故 往言之 地主快許 至欲增修云”

50 趙克善, 『忍齋日錄』, 1618년 11월 9日. “印公打傷路人將死 以故書堂僧徒潰散 父主人言于 地主 而親往鎮定也”

사역과 증물이 유불의 수직적 관계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면 잔치와 음주 그리고 놀이는 수평적 관계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장면이다.⁵¹ 특히 술은 유불에 통용되는 기호식품이었다. 승려들에게서 술에 대한 경계나 기휘적 정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유자들 또한 그들의 음주에 어떤 거부감도 드러내지 않는다.

① 서당 학장인 정명이 이때 와서 뵈었기에 술을 먹여 보냈다.⁵²

② 한후유(韓後愈)·한후기(韓後琦)·박유정(朴裕貞) 및 생도 김의립(金義立)·유득민(俞得敏) 및 태감상인(太監上人)이 찾아와서 술을 마셨다. 첫째 형도 그의 술을 가지고 와서 마셨으며, 박원길(朴元吉)도 왔다가 갔다.⁵³

아래 기사는 조정진이 서당의 학도 및 부형들의 초대를 받아 잔치에 참여한 뒤 서당에 들러 쉬고 있는 장면을 기술한 것이다.

아버님이 외대성산(外臺城山)에서 열리는 잔치에 갔다. 서당의 생도와 그들의 부형들이 모두 외대성산에서 잔치를 열어 와주기를 청하였다. [...] 어둑할 때 서당에 가서 묵었다. 뒷산 꼭대기까지 마중 나갔다. 첫째 형을 만나 아버님이 취해서 서당에 누웠다는 말을 듣고서 갔더니 유자와 증들로 서당이 가득 찼는데 모두 취한 사람들이었다. 아버님은 방안에 취해 누워서 자고 있었고, 인공, 자익, 자양도 이곳에 머물러 있었다. 인인선과 정명상인이 나에게 술을

51 이와 관련하여 『冶谷日錄』에는 元規라는 승려가 조극선의 아우 趙爲善의 논을 매입하는 기사가 실려 있어 유불간의 경제적 거래 또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1634年 4月 29日. “又有元規禪師 爲買爲善大枝洞畚 以綿布十五疋 來求明文”). 이 장면에서 원규와 조위선의 관계는 논(畝)의 買受者와 賣渡人일 뿐 여기에 유자와 승려라는 신분적 요소가 개입될 여지는 매우 적어 보인다.

52 趙克善, 『忍齋日錄』, 1617年 11月 30日. “書堂學長正明 是時來謁 飲以送之”

53 趙克善, 『忍齋日錄』, 1619年 1月 3日.

권하였다. 밤이 되자 아버님이 술에서 깨어 중에게 북을 치라고 하였다. 생도들이 일어나 춤을 추었다. 마음껏 구경하면서 다시 술을 마시다가 그쳤다.⁵⁴

유불이 혼음·동숙하는 몫시 당혹스런 현장의 중심에 서당의 실질적 운영주체인 조경진이 위치하고 있다. 조극선에게 술을 권하는 정명의 태도에는 스스로움이 없고, 북을 치고 춤을 추는 광경에서는 유불의 어떤 차이도 발견할 수 없다. 사역과 증물이라는 관계의 수직성으로만 양자의 관계를 규정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바둑이라는 놀이의 영역에서 양자의 신분적 처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 이들은 하나의 동호인으로서 무리를 지어 관람했고, 중들의 씨름을 구경하는 장면에서는 문화적 공감의식과 같은 정서가 감지된다. 만약 중들로 하여금 바둑판을 가져오게 한 것을 사역으로 간주하고, 유자들을 서당으로 맞이하여 술을 대접한 것을 아부행위로 규정한다면, 이는 사료의 맥락에 대한 이해의 결핍에서 기인하는 단견일 뿐이다.

서당 앞산의 소나무 아래에 이르러 중들을 불러다 바둑판을 가져오게 했다. 둘째 형과 자익은 내기 바둑을 두었다. 명사(明師: 正明)와 여러 상인(上人)이 와서 보았다. 이어서 서당으로 맞이하여 술을 내어왔다. 또한 중들이 하는 ‘씨름놀이[角力戲]’를 구경했다. 저녁 무렵에 돌아왔다.⁵⁵

54 趙克善, 『忍齋日錄』, 1618年 3月 27日. “父主赴宴于外臺城山 書堂生徒及其父兄 共開宴外臺城山 以奉請矣 金德崇·子翼·子昂·一兄來會 且邀叔主 一時偕赴 午余往話二兄 夕 二兄來語余 暝 往書堂宿 迎侯至後頂 遇一兄 知父主醉臥于書堂 往則滿堂儒釋 盡是醉人 父主醉臥于房中 方睡 而印公·子翼·子昂亦留此矣 仁宣及正明上人勸余飲 既夜 父主乃醒 使僧擊鼓 生徒起舞 縱觀復飲 止”

55 趙克善, 『忍齋日錄』, 1619年 7月 14日. “與二兄偕至松亭 遇子翼·子衡語久之 仍共步至書堂 前山松樹下 招僧取碁局 二兄與子翼賭碁 明師及諸上人來見 乃邀入書堂 進酒且觀僧輩角力之戲 夕返”

다소 의외일지 모르겠지만, 승려에게도 세속의 생일과 같은 축하의 날이 있었고, 그들 또한 생일연을 마련하여 유자 등 여러 빈객을 접대한다. 조극선의 일기에서 포착되는 생일연의 주인공은 정명과 묘순인데, 묘순의 생일연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⁵⁶ 잔치는 ‘술자리(酒宴)’를 전제로 했고⁵⁷, 조정진은 언제나 귀빈으로 초청되었다. 중요한 것은 잔치를 마련하는 주체, 즉 경제적 비용의 담당자가 승려가 아닌 서당 생도라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승려의 생일을 매개로 유자들이 잔치를 마련하는 까닭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일상에서의 부림에 대한 위로의 의미에 더하여 긴장 또는 갈등의 완화 또는 해소 과정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 같다.

① 아버님과 숙부님이 서당에 가서 잔치에 참석했다. 정명상인의 생일이다. 학도들이 술을 가지고 많이 모였고, 마침 마의(馬醫)가 와서 말을 치료하고 있었는데, 두세 번 모시기를 청한 연후에야 가서 술을 마시고는 저녁에 취하여 돌아왔다.⁵⁸

② 서당에서 아버님을 모시고 술을 마셨다. 오늘이 묘순선사의 생일이다. 자익(子翼)과 자형(子衡) 등이 유국전(俞國全)·유충국(俞忠國) 무리들과 함께 술 자리를 마련하여 서당의 학도를 보내와 아버님을 모시고 갔다. 나는 사양하고 가지 않았다.⁵⁹

56 妙淳의 생일은 2월 19일이고, 1621년을 시작으로 1624년, 1628년, 1629년 등 총 4회의 生日宴이 조극선 일기에 기술되어 있다(趙克善, 『治谷日錄』, 1624年 2月 16日. “大人以妙淳師生日 往飲于書堂”; 1629年 2月 17日. “到書堂返 是日乃淳師生日 有酒奉請 永善陪季父·二兄而至 乃共陪 徒步往焉”).

57 1628년 묘순의 생일 때는 안주로 고기[肉]가 마련된 예도 있다(趙克善, 『治谷日錄』, 1628年 2月 17日. “會于書堂返 是日乃妙淳師生日也 乃致邀 而大人先往 余到下宅 與二兄語 季父亦先之 奴馬還 遂與二兄同往 則子翼及諸俞五人及一兄·鄭敬男氏·晏·冕等亦會矣 肴亦有肉 然余則既行素 只飲數觴酒而已”).

58 趙克善, 『忍齋日錄』, 1619年 8月 22日. “父主·叔主如書堂赴宴 正明上人生日也 學徒多以酒會 而適馬醫者來醫馬 再三奉請 然後往飲 夕醉返 叔主又入見克善語歸”

잔치는 때로 승려의 수난을 치유하는 위로연의 형식으로 마련되기도 했다. 1627년(인조 5) 11월 초 이틀에 걸친 잔치가 그것이었는데, 위로의 대상자는 서당의 불박이 승려 대진(大振)이었다.⁶⁰ 대진은 어떤 일과 관련하여 정운룡(鄭雲龍)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매를 맞는 곡절이 있었다.⁶¹ 이 사건의 전말은 자세하지 않지만 조경진·극선을 비롯한 유자들은 대진을 동정하는 입장에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마음은 위로연의 개최로 표현되었다. 이에 대진은 11월 8일 답례 형식의 잔치를 마련하여 조경진 부자 등 유자들을 초청했던 것이다. 이점에서 잔치는 '먹고 마시는 즐거움의 자리'를 넘어 유불간 갈등과 대립의 완화장치로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다.⁶² 1621년 조극선의 벗 박원백이 승려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폭압적 징벌이 아닌 대화로써 해법을 모색했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원백(元伯)이 아침에 왔을 때 승려들에게 모욕당한 일을 말하기에 그대로 서당에 가서 자익·원백 및 승려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왔다.⁶³

유불간에 긴장 및 갈등 관계가 항존했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해소 또한 완화하는 장치의 유무이고, 그것은 또 그

59 趙克善, 『忍齋日錄』, 1621年 2月 17日. “陪飲于書堂 今日乃妙淳師生生日也 子翼·子衡等與俞國全·忠國輩設飲 而遣書堂學徒來 陪父主歸 余則辭不住”

60 서당은 위로연의 주요 활용 공간이었는데, 1618년 巡使에게 수모를 당한 계장 趙揆의 위로를 위한 잔치가 개최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趙克善, 『忍齋日錄』, 1618年 6月 5日. “會筵于書堂【以契丈趙別監揆氏 昔者見辱於巡使 故今爲之慰問宴】”).

61 『忍齋日錄』에 ‘宣傳官 鄭雲龍’이란 기술이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그는 무관 신분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62 趙克善, 『洽谷日錄』, 1627年 11月 8日. “陪大人 飲于書堂 頃日書堂之釀 盖爲大眞上人曾被薰杖於鄭雲龍之故也 大眞遂以答謝之禮 乃大釀 奉請諸尊”

63 趙克善, 『洽谷日錄』, 1621年 3月 2日. “元伯朝來時爲言僧徒見慢事 仍之書堂 遇子翼與元伯及諸上人 敘話而歸來”

사회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덕산지역의 유불은 그들 나름의 완충적 매체를 생활문화적 영역 속으로 끌어들이어 작동시키고 있었다. 생활 예법의 범주에 드는 '세배'도 그 가운데 하나였다.⁶⁴

조극선의 일기에 따르면, 17세기 초반의 세배는 가족 또는 친족예법이 아닌 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공동체 예법으로서 유불간에도 자연스럽게 행해졌다.

- ① 이웃 마을의 장로, 두 암자의 승려 및 현리가 번갈아 와서 세알(歲謁)했다.⁶⁵
- ② 임기(林沂) 및 의영상인(義英上人) 또한 세배하고 갔다.⁶⁶
- ③ 두 암자의 승려 및 마을의 장로 또한 와서 뵈었다.⁶⁷

물론 승려들의 집단적 세배는 수평이 아닌 상향 예법으로 선처(善處)를 예비하는 의미가 컸지만 이것이 호혜적 관계의 지속에 영향을 미쳤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예컨대, 조극선이 집안 내부의 긴급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 고민을 털어놓으며 해결책을 강구한 대상이 승려였다는 사실도 상호 믿음성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컸다.⁶⁸

한편 서당에서의 유불 관계는 때로 역전성을 수반하기도 했다. 그것은

64 鄭述의 문인 黃宗海가 木川縣 細城面 孔村에서 시행한 '孔村洞約'(1641年)에 따르면, 歲拜는 친족문화가 아닌 공동체의 敬長文化였고, 종래에는 新正·冬至 및 四孟朔 등 연 6회 행하던 관행을 新正으로 한정하는 규정이 보인다(黃宗海, 『朽淺集』卷7, 〈洞規凡例四十六條〉) "古人遇新正冬至四孟月朔少者幼者 於尊者長者 皆有謁見之禮 令人雖不能一從此禮 如正朝例有謁見之規 而上下人中或多廢之 殊甚不敬 自今以後 互相勸勉 着意舉行". 조극선의 일기 및 황중해의 『朽淺集』에 의거할 때, 17세기 초중반부터 '歲拜'가 관행화 된 것으로 파악된다.

65 趙克善, 『洽谷日錄』, 1624年 1月 1日.

66 趙克善, 『洽谷日錄』, 1624年 1月 9日.

67 趙克善, 『洽谷日錄』, 1625年 1月 5日.

68 趙克善, 『洽谷日錄』, 1624年 4月 14日. "家間悶急之事多端 而無處告語 遂往書堂前岸 喚僧 淳師出來共語 乃盡道所懷 使淳師通告相切處"

경제적 측면에서 표출되었는데, 즉 승려에게 쌀을 꾸는 ‘차미(借米)’ 행위였다. 물론 그 빌림 중에는 서당에서의 생활을 위한 한시적인 것도 있었지만⁶⁹ 생계 해결 차원의 절박함이 간파되는 상황도 있었다.

① 전답은 장차 거칠어 가고 집안 살림도 궁핍하다. 지난번에는 서당 중에게 쌀 5되를 빌려 썼고, 어제 저녁부터는 청보리(靑糶)를 배어 죽을 쑤는 형편이다.⁷⁰

② 한 달 전 서당의 중 초순의 쌀 2되(斗), 처봉(處奉)의 쌀 3되를 빌려 썼는데, 오늘 쌀로 갚았지만 모두 받지 않고 돌려보냈다.⁷¹

빌림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상황은 몹시 긴박해 보인다.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묘순의 쌀을 빌린 것도 우연치 않아 보이며, 갚은 쌀을 되받았을 때 그들에 대한 약간의 부채의식도 불가피해졌다. 바로 이런 관계의 중첩 구조가 긍정적으로 순기능적으로 작동할 때 그것은 호혜의 단초가 되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1624년 묘순에게 가야사로의 이송 조처가 내려올 때 조극선 등 서당 유생들이 등상(等狀)을 올려 묘순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었던 동기 또한 이런 영역에서 구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서당의 유자와 승려 사이에는 인정적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장면들이 적지 않다. 승려의 환속 및 거소 이동과 관련된 대화 및 그것에 대한 심경 표현이 바로 그것이다. 아래는 묘순 휘하에 있던 6명의 사미승이 환속한 사실을 접한 조극선이 그 소회를 적은 것인데, 유자적 정체성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 승려와의 친화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불세의 확산을 결코 달가워하지 않았던 본심의 표출인 것이다.

69 趙克善, 『冶谷日錄』, 1627년 5월 14日. “住宿書堂 聞二兄與汝彬·得之會于書堂 既暮乃往 則子美·子明等共會 爲政圖之戲 覓酒方飲 余亦飲二觴 遂留諸友 貸僧米作飯 共做夜話”

70 趙克善, 『冶谷日錄』, 1620년 5월 2日. “田土將爲荒蕪 家用亦乏 頃者 貸用米五升於書堂僧 自昨夕已刈靑牟作粥”

71 趙克善, 『冶谷日錄』, 1620년 5월 12日. “月前貸用書堂僧炒淳米二升·處奉米三升 今以米償之 則皆不受還納”

묘순상인이 찾아왔다. -스스로 말하기를 예전에 사미승 3명이 있었는데 모두 머리를 길렀고, 지금 또 사미승 3명이 있는데 한꺼번에 장가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내 성품으로는 중이 환속한 것을 들으면 번번이 기뻐하였다.⁷²

한편 조극선은 혜감의 환속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⁷³ 반면 1628년 정월 대진과 언정의 이사(移寺)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감추지 않는다.

서당 승려 대진이 와서 뵈고는 '다른 절로 이주한다'고 했다. 이 승려는 양선(良善)한 자인데, 떠난다고 하니 몹시 애석하지만 억지로 만류할 수도 없는 법이다.⁷⁴

대진이 이거 의사를 표명한 다음날인 1628년 1월 4일에는 언정(彦定)이란 승려가 찾아와 같은 사유를 표했다.

서당 승려 언정 또한 와서는 '다른 절로 옮겨 간다'고 했다. 지난 병진년(1616) 무렵 이 승려 및 대진이 함께 수덕사로부터 우리 초암으로 왔는데, 둘이 또한 같은 때에 옮겨가게 되는 것이다. 오가는 승려 가운데 이 두 승려를 제외하고 누가 거취를 아뢴 이가 있었던가.⁷⁵

72 趙克善, 『忍齋日錄』, 1618年 12月 6日. “妙淳上人來見 自言 昔有沙彌三人 皆長髮 今又有沙彌三人 一時娶歸 然余之性 聞僧還俗則輒爲喜也”

73 趙克善, 『忍齋日錄』, 1620年 5月 18日. “一兄來語久去 是時 昔爲書堂僧惠鑑 今退俗 退俗來謁 與之語”

74 趙克善, 『冶谷日錄』, 1628年 1月 3日. “書堂僧大眞師來謁 以告移住他寺 此僧 良善者 甚惜其去 而不可強留之”

75 趙克善, 『冶谷日錄』, 1628年 1月 4日. “書堂僧彦定上人亦來 告移住他寺而去 往在丙辰年間 此僧與大眞偕自修德山來于吾草庵 今其移去也 又在同時 他僧去來 何曾告稟 此二僧獨”

조극선은 대진을 양선한 승려로 기억하고 있고, 행간에는 이별의 아쉬움이 진하게 묻어 있다. 그것은 12년 동안에 쌓인 정리의 소치였고, 혼례 부조를 비롯한 대진의 각종 증물 또한 조극선에게 깊이 각인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보다 두 유불을 강하게 묶은 것은 일종의 동지의식이었다. 1617년 서당은 낙성되었지만 승려들이 기거할 공간(僧舍)은 변변치 않았던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1620년 겨울 대진이 화주(化主)가 되어 승사 중건을 자임했던 것이다.

대진 선사가 스스로 화주가 되어 서당과 승사(僧舍)를 다시 지었다. 이 때문에 아버님이 인동지(印致明) 집에 서까래(椽木)을 구하러 간 것이다.⁷⁶

조경진이 승사 건축에 따른 목재를 구하는데 정성을 쏟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진의 역할은 유자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행위였음이 분명했다. 이에 조극선 또한 문자 협찬을 통해 일조하게 되는데, ‘서당승사중조권선문(書堂僧舍重造勸善文)’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그는 위 글의 개찬을 마다하지 않았을만큼 대진의 역할에 적극 호응했던 것이다.⁷⁷ 승사 중건에서의 동사(同事)가 동지의식을 배태하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① 아침에 글을 지었다. 대진선사를 위해 ‘서당승사중조권선문’을 지었다.⁷⁸

② 대진선사를 위해 ‘권선문’을 다시 지어서 정서하였다.⁷⁹

76 趙克善, 『冶谷日錄』, 1620年 12月 4日. “大振師自爲化主 重造書堂僧舍 故父主爲求椽木於印同知家”

77 조극선의 문집 『冶谷集』에서는 ‘書堂僧舍重造勸善文’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 이것은 후손들에 의해 이루어진 문자적 隱諱 행위의 결과로 파악된다.

78 趙克善, 『忍齋日錄』, 1620年 12月 5日. “朝有製 爲大振師製書堂僧舍重造勸善文”

79 趙克善, 『忍齋日錄』, 1620年 12月 14日. “爲大振師 改作勸善文 而寫之室中”

여기에 더해 조극선이 대진에 대해 감사했던 것은 거취의 표명이라는 ‘예법의 지킴’이었다. 어떤 측면에서 ‘이 두 승려 뿐[此二僧獨]’이라는 표현은 서당에서의 유불간 친화가 한시적이면서 이해적인 성격을 지녔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1629년 4월 조극선은 승려 세호(世浩)의 이거 통보를 받게 된다. 1621년(광해군 13) 이래 9년의 정리는 그와의 이별 또한 감당하기 힘든 애석의 기억으로 남게 했다.⁸⁰ 그런 마음을 요량한 때문인지 세호는 이거한 지 6개월 뒤인 동년 10월 지나는 길에 조극선을 찾는 정성을 보였다.⁸¹ 대진·연정·세호의 이거를 바라보는 조극선의 심사에서 드러나는 공통적 정서는 무엇인가? 그것은 유자와 불자라는 사회적 신분의 틀을 넘어서는 인정론이다.

2. 긴장과 갈등: 송유억불의 이념적 구호성(口號性)에 대한 진단

유불 사이의 잦은 왕래 및 교유는 인간적 동정의식에 바탕하여 친연성을 촉진하는 과정으로 다가오는 장면도 적지 않지만 상호간 이념적 상반성, 사회적 조건의 차이는 필연적으로 긴장과 갈등을 수반하게 된다. 유자를 향한 승려의 증물 행위는 조극선의 일기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자발성에 바탕하였기 때문에 불만적 요소는 크게 표출되지 않는다. 다만, 그것에 타율성이 개입할 경우 긴장의 조짐이 발동한다. 아래 인용문에는 조극선 등 유자들의 잦은 왕래에 따른 승려들의 정서적 반감이 간명, 강렬하게 분출되고 있다.

80 趙克善, 『冶谷日錄』, 1629년 4월 11日. “書堂僧世浩來謁告訣 且曰自辛酉 來住書堂凡九年 一朝遠去 情不能自堪云云”

81 趙克善, 『冶谷日錄』, 1629년 10월 8日. “昔居書堂僧世浩過謁”

오후에 집암(什菴)으로 옮겨 머물렀다. 왕래한 지 오래되어 중이 백안시 할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양식도 모자랐기에 서로 의논하여 다른 절로 옮기기로 하였다.⁸²

이해관계라는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낸 것이고, ‘백안시’는 약자인 승려의 처지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 대응 방식일 수 있었다. 그나마 백안시로 표현되는 냉대는 감정적 영역의 문제일 뿐이며 당장 심각한 대립으로 비화하지는 않았지만 승려에 대한 유자의 장악력이 절대적이지 않았음은 분명하다.

모든 인간관계는 시세에 영향을 받는다. 조선이 주자학을 건국이념으로 표방함으로써 유자들이 국가운영의 주체로 등장한 것도 시세에 다름 아니었다. 승려들 또한 시세에 따라 입장과 태도에 있어 가변성을 보인다. 그런 정황은 왕실의 원당(願堂)이었던 가야사 승려들의 고압적 태도에서 여과 없이 노출되었다.

가야사에서 돌아왔고 임감역(林監役)은 돌아갔다. 중들이 또 본궁(本宮)의 원당이라고 한창 양반을 능멸하고 모욕하였다. 나는 화를 내며 큰 소리를 치면서 중 하나에게 장(杖)을 치고자 하였으나 수승(首僧)이 새벽이 되어서야 찾아뵈었다. 그래서 닳나무를 받았던 여러 중들을 불렀다. 도련지(搗練紙) 등은 이미 만들긴 했으나 다듬지는 않았고, 백지(白紙)는 아예 만들지 않았으니 매우 분하다. 대개 수승의 죄는 아니고 또 닳나무를 받았던 자들도 모두 서로 아는 중이기는 하지만 분을 참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⁸³

82 趙克善, 『忍齋日錄』, 1618年 6月 26日.

83 趙克善, 『忍齋日錄』, 1621年 11月 24日.

조극선은 가야사의 승려들이 왕가(王家)의 위세를 끼고 양반들을 모욕하는 장면에 몹시 분개한 나머지 매질을 피하고 있지만 행간에 흐르는 정서는 허위(虛威)의 양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그 분개가 가시기도 전에 자신 또한 수모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종이 제작 지시에 사실상 태업(怠業)으로 맞선 승려들의 태도에 대해 극심한 분노심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 또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감정적 배설을 넘어서지 못한다.

승려들의 불복종 행위는 계속 된다. 1621년(광해군 13) 12월 22일 임첨지(林僉知)가 승려들에게 유둔(油筴)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사실을 접했을 때는 한탄을 머금어야 했고⁸⁴, 명령 또는 요청에 대한 거둬진 불응은 사실상 통제력의 상실을 의미했다. 조극선의 분노와 한탄도 바로 그 지점에서 폭발하는 것이었다.

물론 통제력의 상실은 상시화 된 것은 아니었고, 그것은 또 다른 시세의 작용 속에서 조정의 국면을 맞기도 했지만 ‘불[승려]’이 ‘유[유자]’의 명령에 불응하고, 심지어 대항할 수 있었던 것이 조선후기 유불관계의 실상이었고, 조극선 일기는 그 유연성 내지 가변성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다.

3. 유불간 학문과 지식 수수(授受)의 실제: 승려 쌍욱(雙旭)과의 학연

유자와 승려간의 교류 또는 지적 대화의 예는 다른 인물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⁸⁵ 조극선과 쌍욱처럼 사제관계를 맺은 예는 흔치 않다. 더욱이

84 趙克善, 『忍齋日錄』, 1621年 12月 22日.

85 예컨대, 17세기 소론계 유학자 朴世堂의 경우 회룡사의 豐悅, 망월사의 淸暉, 학수사의 還, 석림사의 海眼·妙察, 석왕사의 顯綸·才憲을 비롯하여 慧智·法澄·太玄·守源·守堅·天倫·惠聰·雪默·戒淨 등 교류했던 승려가 매우 많았다. 이 가운데 학수사의 승려

두 사람의 관계는 단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표본적 가치를 담보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조극선이 사도(師道)를 자처하며 향촌의 자제들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전개한 동몽교관(童蒙敎官)에서 물러난 이후인 1627년(인조 5) 무렵이었다. 당시 그의 나이는 30대 초반으로 박지계(朴知誠)·조익(趙翼)의 문하를 출입하며 학문에 정진하던 시기이기도 했다.⁸⁶

당시 조극선의 야곡문하를 출입했던 문생들의 대부분은 덕산 인근에 거주했던 사족 자제들로서 조극선의 인친 또는 사우(士友)의 자제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표5-조극선 문인: 호서권

趙克善 門人 [德山 등 湖西圈]	申以義 朴守一 李俊明 趙子儀 趙俊吉 朴喞 李德有 朴喞 李一顯 鄭得善 鄭永善 申子肅 李宰 林忠男 鄭季龍 印信敏 俞慶(卿)雲 鄭仁達 申以孝兄弟 李時吉 申必聖 李翎賢 朴峻 忠善 鄭興周 鄭生輩 裴聖顯 林士鳴 尹明离 尹郎 安俊龍 李善行 申績 金義立 金德寶
----------------------	---

이런 흐름 속에서 야곡문하에서 수학했던 다소 이질적인 인적 집단이 존재하였는데, 바로 승려였다. 『인재일록』·『야곡일록』 등 조극선의 일기에서 확인되는 승려 문인은 쌍육과 의영(義英)인데, 여기서는 쌍육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승려와의 학연은 선대 이래의 가풍과 연관성이 컸다. 아버지 조경진이 의영이란 승려를 교육한 사실이 이런 추론에 무게를 실어 준다.⁸⁷

還은 글씨에 능하고 讀經을 잘하는 學僧으로 기억했고, 석왕사의 승려 顯絢과는 論語의 '朝聞道夕死可矣'라는 구절을 두고 論爭을 벌인 적도 있다(김학수, 「朴世堂의 『西溪遺墨』: 사제간의 대화와 진솔한 삶의 기록」, 『장서각』 29(2013)).

86 김학수, 「趙克善의 일기를 통해 본 17세기 지식인의 師弟觀: 숨김과 드러냄」, 『장서각』 38(2017).

의영상인이 백지 18장을 올렸다. -의영도 배우러 왔다.-⁸⁸

의영과 마찬가지로 쌍옥 또한 본디 조경진에게 가르침을 받아 1627년 무렵부터 그 아들 조극선에게 이관된 경우였다.

박돈(朴墩)·이덕유(李德有)가 또 와서 수학했다. 쌍옥상인 또한 일찍이 아버지께 수학했던 승려인데 요사이 거의 매일 나에게 와서 배우고 있다.⁸⁹

위 인용문에서 보듯 조극선 문하에는 유불이 함께 출입하고 있다. 이에 따른 유지들의 거부감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유불동학’이 이들에게는 하나의 관행이자 자연스런 문화로 받아들여졌음을 의미한다.

『야곡일록』에 따르면, 쌍옥은 1627년 12월 11일부터 1633년 5월까지 약 5년 6개월 동안 약 80회에 걸쳐 조극선과 상회(相會)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는 상견이 일상화 되어 있었음을 뜻한다. 물론 80회 모두가 학업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상회의 본질적 동기가 지식의 취득에 있었음을 전제할 때, 조극선과 쌍옥 사이의 사제관계의 틀은 매우 견고했다.

학문적 수수의 공간은 서당 및 조극선의 본가였다. 후자가 수학 공간으로 활용된 것은 1629년(인조 7) 4월 3일 서당이 소실되는 난관이 있었기 때문이다.⁹⁰ 쌍옥은 조극선에게 신발(草履)·종이(常紙·白紙)채소(菁本) 등을 증정하

87 조경진은 이후에도 서당에 배속된 연소한 승려에 대한 교육을 지속했고, 이 과정에서 조극선이 그 임무를 보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趙克善, 『冶谷日錄』, 1627年 9月 10日. “申以義之弟積及書堂年少上人 受學于大人 而大人酒困 余誦之”).

88 趙克善, 『忍齋日錄』, 1618年 8月 12日.

89 趙克善, 『冶谷日錄』, 1627年 12月 11日. “朴墩·李德有 又來受學 雙旭上人 亦嘗受學于大人 近亦日學于余”

90 趙克善, 『冶谷日錄』, 1629年 4月 3日. “書堂災 詰朝 有人來報 去夜書堂火 不勝驚愕 季父·一兄·二兄會 余仍共二兄往見之 子翼及諸俞皆集 盖有偷兒數來窺伺 僧輩常戒懼 而忽以火

거나 식사대접을 하는 등 물질적 제공과 노력 봉사를 마다하지 않는다. 그것은 서당에 배속된 승려로서의 의무와 조극선의 학문적 시혜에 대한 사적 답례[幣帛]의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 ① 서당 승려 쌍욱이 상지(常紙) 1속을 바쳤다.⁹¹
- ② 서당 승려 쌍욱이 작아(爵兒)를 위해 작은 신발을 지어서 바쳤다.⁹²
- ③ 오늘 아침 쌍욱이 또 우리 두 사람에게 밥을 대접했다.⁹³
- ④ 서당으로 돌아오니 쌍욱이 밥을 지어 대접했다.⁹⁴
- ⑤ 쌍욱이 와서 해채(海菜)를 바쳤는데, 이른바 세모(細毛)라고 하는 것이다.⁹⁵
- ⑥ 아침에 쌍욱이 와서 뽕고는 상지 1권을 바쳤다.⁹⁶
- ⑦ 쌍욱이 절일(節日)이라고 신발[草履] 세 켤레를 바쳤다.⁹⁷
- ⑧ 쌍욱이 숙마(熟麻)로 지은 신발 한 켤레를 바쳤다.⁹⁸
- ⑨ 쌍욱이 아버지께 상지 2권을 바쳤고, 나에게도 2권을 바쳤다.⁹⁹
- ⑩ 쌍욱이 백미 두 말, 누룩[麴子] 한 덩이를 아버지께 바쳤다고 한다.¹⁰⁰

燕 無水莫能救 終然灰燼而已 看來慘然 不過因纖芥之恨 而作禍如此 可歎惡人之在洞而不死也 炒淳·元規猶有貯穀于厥兄弟 其他數四僧輩赤脫 將不免餓死 余唐音初卷 雙旭借去不還 亦已爲灰 既返 而季父乃歸”

- 91 趙克善, 『治谷日錄』, 1627年 12月 11日. “朴暉·李德有 又來受學 雙旭上人 亦嘗受學于大人 近亦日學于余”
- 92 趙克善, 『治谷日錄』, 1628年 3月 4日. “書堂僧雙旭亦爲爵兒 作小履以進”
- 93 趙克善, 『治谷日錄』, 1628年 6月 16日. “今朝雙旭上人又爲饋吾二人”
- 94 趙克善, 『治谷日錄』, 1628年 6月 27日. “歸書堂 則雙旭上人 自炊飯以供焉”
- 95 趙克善, 『治谷日錄』, 1628年 8月 6日. “雙旭上人來獻海菜 所謂細毛者”
- 96 趙克善, 『治谷日錄』, 1629年 7月 2日. “朝雙旭上人來謁 獻以常紙一卷”
- 97 趙克善, 『治谷日錄』, 1631年 5月 4日. “雙旭爲節日 進草履三部”
- 98 趙克善, 『治谷日錄』, 1631年 6月 1日. “雙旭熟麻履子一部”
- 99 趙克善, 『治谷日錄』, 1631年 閏11月 29日. “雙旭獻常紙二卷于大人 於余亦以二卷”
- 100 趙克善, 『治谷日錄』, 1631年 7月 4日. “僧雙旭獻白米二斗·麴子一圓于大人云”

뿐만 아니라 쌍옥은 조극선을 위해 종이를 제작하는 사역에도 적극 부응했는데, 이 또한 지적 수혜에 대한 보상행위였다.¹⁰¹

이제 조극선과 쌍옥 사이의 학문적 수수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입문 초기인 1627년 12월부터 1628년 6월까지의 수학 내용은 분명하지 않다. 일기 또한 ‘쌍옥이 와서 배움을 청하자 가르쳤다’, ‘세일(世一)·쌍옥 등을 가르쳤다’, ‘쌍옥이 읽고 있는 책을 가르쳤다’¹⁰² 등의 포괄적 기술이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조극선이 교육한 구체적 서명이 등장하는 것은 1628년 7월 4일 기사이다.

쌍옥에게 『당음(唐音)』을 가르쳤다.¹⁰³

원나라 문인 양사굉(楊士宏)이 편찬한 당시(唐詩) 선집인 『당음』은 조선시대 서당의 필수 교재였다. 1609년(광해군 1) 조극선이 이명준(李命俊)의 문하에 입문하던 초기에 배운 교재가 『당음』이고, 1618년 조극선이 동향의 후진들을 가르친 것이 바로 이 책이었다.¹⁰⁴ 이는 쌍옥 또한 초학 단계에서는 유자와 동일한 과정으로 교육을 받았음을 뜻한다. 쌍옥은 조극선에게 책을 빌려 학습할 만큼 『당음』에 애착을 보였는데, 책의 반납이 이루어지기 전인 1629년 4월 3일 서당 화재 때 이 책 또한 화소되는¹⁰⁵ 곡절이 따랐다.

1629년(인조 7) 서당의 화소는 교육 공간의 변동을 수반했고, 이때부터 쌍옥은 조극선의 집을 왕래하며 수학하게 된다. 1631년의 경우 매월 2~4회

101 趙克善, 『洽谷日錄』, 1631年 11月 8日. “使雙旭依以常紙樣造得二卷”

102 趙克善, 『洽谷日錄』, 1628年 3月 4日. “而雙旭上人世一請學 誨之”; 1628年 5月 29日. “仍又教世一·雙旭等”; 1628年 6月 19日. “余又誨朴嘯及雙旭所讀書”

103 趙克善, 『洽谷日錄』, 1628年 7月 4日. “教雙旭唐音”

104 趙克善, 『忍齋日錄』, 1609年 12月 3日. “與從兄始學唐音于地主李侯”; 趙克善, 『忍齋日錄』, 1618年 閏4月 24日. “李自善·惟善告往溫陽 兩生近來受唐音於余”

105 趙克善, 『洽谷日錄』, 1629年 4月 3日. “余唐音初卷 雙旭借去不還 亦已爲灰”

정도 왕래했고, 동년 6월에는 11회를 왕래 수학하는 열정을 보였다. 이 무렵 그가 수학했던 책은 『중용(中庸)』이었는데, 조극선은 그를 위해 현토(懸吐)를 붙일 만큼 교육에 특별한 정성을 쏟았다.

쌍육을 위해 『중용』에 현토 작업을 했다.¹⁰⁶

1631년 7월까지 학업에 열정을 보였던 쌍육은 약 두 달 동안 아무런 기별도 없이 조극선을 찾지 않다가 동년 9월 19일 백지 한 권을 폐백으로 삼아 다시 조극선에게 배움을 청했다.

쌍육이 요사이 오지 않다가 오늘 다시 배우러 오면서 백지 한 권을 바쳤다.¹⁰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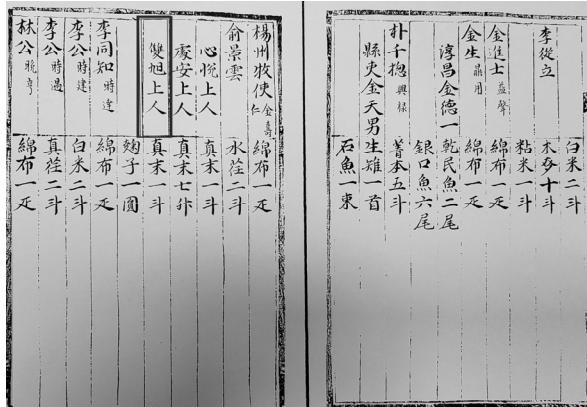
이후 쌍육은 월 3~4회 왕래 수업했고, 1631년 12월 13일에는 다소 놀라운 요청을 하기에 이른다. 『장자(莊子)』를 배우고 싶다는 뜻을 표명한 것이었다. 주자학적 학습의 틀에 고착되어 있었던 조극선에게 『장자』는 결코 익숙한 텍스트가 아니었고, 타인을 교육할만한 처지는 더욱 아니었다. 쌍육의 『장자』 학습 요청을 받고 며칠 동안이나 예습하며 해독의 어려움을 토로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쌍육이 장자를 배우기를 원했다. 요사이 며칠 동안 장자를 두루 읽어 보았지만 주해가 없고 현토도 없어 처음부터 끝까지 전편을 이해할 수 있는 이가 드무니 웃음이 나올 따름이다.¹⁰⁸

106 趙克善, 『冶谷日錄』, 1631年 6月 23日. “爲雙旭 庸學懸吐”

107 趙克善, 『冶谷日錄』, 1631年 9月 19日. “雙旭近不來 今復來學 獻以白紙一卷”

108 趙克善, 『冶谷日錄』, 1631年 12月 13日. “雙旭願學莊子 近數日將莊子看遍 然自無註無吐 從頭至尾 全篇領悟者甚少 可笑”



永思錄: 조극선 妻 강화최씨 상례시 부조기(1654년)

이로부터 6일 뒤인 1631년(인조 9) 12월 19일 쌍옥은 조극선에게 『남화경(南華經)』을 차람했고¹⁰⁹, 12월 24일에는 『고문진보(古文眞寶)』를 배우는 등 공부의 난이도를 끌어올리며 지식의 외연을 확대하는 등 상당한 수준의 지적 수수관계를 지속했다.

더욱이 쌍옥은 조극선이 난감하게 여겼던 『장자』 학습의 효율성을 위해 스스로 주해와 구토(句吐)가 딸린 『장자』를 구해 질의하는 열성을 보이기가 지 했다.

이후에도 쌍옥은 1632년 11월까지 조극선과의 학문적 수수관계를 꾸준하게 유지하다 1633년부터는 거소를 옮기게 됨으로써 학연은 중단되기에 이른다. 그의 새로운 거소가 내원암(內院庵)이란 사실은 1633년 5월 10일 쌍옥이 조극선을 예방한 자리에서 밝혀지게 된다.¹¹⁰

자료적 한계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는 더 이상의 추적이 어렵다. 그럼에도 위에서 서술한 사실만으로도 조극선과 쌍옥의 관계는 유불이 이념과 신분

109 趙克善, 『治谷日錄』, 1631年 12月 19日. “自昨日借余南華經以讀”

110 趙克善, 『治谷日錄』, 1633年 5月 10日. “雙旭來謁 今居內院云”

을 초월하여 맺은 학연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고, 이점에서 쌍옥은 조극선의 문인, 즉 ‘야곡문인’의 일원으로 편입되어야 한다. 위의 그림에서 보듯 1654년 조극선의 부인 강화최씨가 사망했을 때 쌍옥이 진말(眞末, 양질의 밀가루) 한 말을 부조했던¹¹¹ 것은 학은에 따른 예의 갖춤에 다름 아니었다. 무엇보다 조극선과 쌍옥의 학연은 유불간 사제관계 형성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매우 명징한 사례라는 점에서 보론의 여지를 남긴다.

V. 맺음말

조선시대 유와 불의 관계는 시간과 공간의 조건 그리고 인간의 성격에 따라 그 결을 달리했다. 서울 출신의 사대부였던 오희문에게 승려에 대한 분노와 경멸의 정서는 간파되지 않는다. 그것은 오희문 개인의 성격 탓도 작용하였겠지만 전란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생존이 절박했던 현실적 상황이 승려라는 타자를 배척보다는 공존의 대상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다.

반면 예안의 엘리트사대부였던 김영의 승려관은 ‘송유억불’이라는 국시의 교과서적 적용 양상을 보여주었다. 그에게 있어 승려는 주자학적 문명사회의 저열한 타자, 사찰은 문명사회의 경관을 훼손하는 장애물에 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는 유람 또는 크고 작은 회합을 위해 사찰을 요긴하게 활용하며 각종의 편의 제공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것은 이중성이었고, 주자학적 염치의식의 상실이었다.

대부분의 경우, 조선 유자들의 승려 및 사찰과의 관계는 간헐성과 임의성

111 『永思錄』(上) 〈受贈贈祭奠記〉.

의 범주 속에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조극선에게 사찰은 일상의 공간이었고, 승려는 생활공동체의 일원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런 정황은 그가 1609년부터 1635년까지 26년 동안 최소 50개 이상의 사찰 및 암자, 70명을 상회하는 승려들과 관계를 맺은 것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승유억불’이라는 정치이념적 선언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그것을 다루는 인간의 운용 방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17세기 초중반 충청도 덕산에서 유교지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조극선의 사찰 및 승려관은 매우 복잡적이었다. 유와 불은 이념적으로 대척점에 존재하였지만 승려를 바라보는 조극선의 시선에 상극성의 요소는 매우 열다. 오히려 그는 승려를 유교적 가치 실현의 유효한 보조 수단으로 여겼고, 협력과 상생의 행보를 주저하지 않았다. 물론 유불의 관계는 결코 수평적일 수 없었고, 그가 추구했던 상보적 행위 또한 유자적 우월성을 전제한 것이었지만 그의 시선과 행동 속에 일방적 탈취, 부림과 같은 약탈성은 드러나지 않는다.

승려를 서당의 학장으로 초빙한 것은 지적 역량에 대한 신인(信認)이고, 생계를 위해 승려의 쌀을 빌리는 ‘차미(借米)’ 현장에서의 유자와 승려는 ‘빌리는 자’와 ‘빌려주는 자’라는 경제적 거래의 대상자일 뿐이었다. 그들에게 술과 잔치 그리고 놀이는 상극성을 해소 또는 완화하기 위한 문화적 장치였다. 특히 유불이 동음·혼숙하는 광경에서는 잠시나마 신분의식을 망각한 인간으로서의 동질성이 강하게 묻어났다.

조극선이 쌍옥이라는 승려를 사실상 제자로 받아들여 무려 6년에 가까운 관계를 유지한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그것은 이념을 뛰어넘는 知的 수수의 가능성을 웅변하는 장면이었다. 조극선이 끼친 학은은 쌍옥이 조극선 일가의 혼상(婚喪)에 무심할 수 없는 이유가 되었는데, 여기서 우리는 유불 사이에도 호혜의 시스템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조극선 일기의 사례가 조선시대의 유불관계의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기에 등장하는 다양하면서도 다소 생경한 스토리를 단편적 사례로 평가 절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어떤 측면에서 이 사례는 전모를 관규(管窺)하는 작지만 선명한 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 吳希文, 『瑣尾錄』.
金垚, 『溪巖日錄』.
趙克善, 『冶谷日錄』.
趙克善, 『忍齋日錄』.
趙克善, 『冶谷集』.
『永思錄』(筆寫本, 趙克善宗家 所藏)
黃宗海, 『朽淺集』.

2. 단행본

- 성봉현·김학수 외, 『17세기 충청도 선비의 생활기록: 조극선의 일재일록과 야곡일록』.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18.

2. 논문

- 김정운, 「17세기 예안 사족 金령의 교유 양상」. 『조선시대사학보』 70, 2014, 239~269쪽.
김학수, 「17세기 호서의 지성 야곡(冶谷) 조극선(趙克善)」. 『조선시대 아산지역의 유학자들』(2), 서울: 지영사, 2010.
_____, 「林世堂의 『西溪遺墨』: 사제간의 대화와 진솔한 삶의 기록」. 『장서각』 29, 2013, 128~170쪽.
_____, 「조극선의 일기를 통해 본 17세기 지식인의 사제관: 숨김과 드러냄」. 『장서각』 38, 2017, 6~55쪽.
_____, 「17세기 사대부의 지식문화기반의 구축과 활용: 趙克善의 『忍齋』·『冶谷日錄』에 나타난 지식정보의 획득 및 활용양상」. 『영남학』 76, 2021, 105~163쪽.
안정은, 「야곡 조극선의 인재일록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국문초록

조선은 주자학(朱子學)의 나라였고, 유자(儒者)와 승려(僧侶)는 대척점에 위치한 상극(相剋)의 관계로 설정되었다. 이런 통념은 일반론적 관점에서는 유효할 수 있지만 생활적 영역, 즉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다 미시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와는 사뭇 다른 결의 사상(史像)과 직면하게 된다.

이 글은 신분적 상극은 상생의 가능성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출발점을 두고 있고, 17세기 호서지역의 유학자 조극선(趙克善)의 일기 『인재일록(忍齋日錄)』·『야곡일록(冶谷日錄)』을 통해 그 해법을 구하고자 한 것이다. 물론 유자와 불자의 친화적 삶의 양상은 유자의 신분적, 사회적 우월성을 전제로 하는 것임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유불간에도 일방적 수탈이나 압제는 작동하기 어려웠고, 오히려 그들은 이해관계에 따라 호혜적 행위를 하기 일쑤였으며, 유자가 불자를 생도(生徒)[문인(門人)]로 받아들여 지식을 전수하는 것은 매우 자못 흥미로운 장면으로 포착되었다. 이 글은 숭유억불(崇儒抑佛)이라는 다소 박제된 시각에서 탈피하여 유불 관계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조명하려는 학술적 행위이다.

투고일 2022. 12. 31.

심사일 2023. 2. 1.

게재 확정일 2023. 2. 15.

주제어(keywords) 조극선(趙克善, Jo Geuk-seon), 유자(儒者, Confucian scholar), 불자(佛者, Buddhist), 상극(Incompatibility), 상생(Co-prosperity), 호혜(Reciprocity), 인재일록(忍齋日錄, Injae Ilrok), 야곡일록(冶谷日錄, Yagok Ilrok)

Abstract

The Boundary of Incompatibility and Co-prosperity as Seen Through the Diary of Jo Geuk-seon, an Intellectual in Hoseo: The Competitive Symbiosis of Confucian Scholars and Buddhists in the 17th Century

Kim, Hak-su

Joseon was a country that practiced the doctrines of Zhu Xi, where Confucian scholars and monks established with incompatible relationship. This conventional wisdom may be valid from a generalist point of view, but from a real-world vantage point, that is, the field of life, which is a more microscopic point of view, you see a very different historical aspect.

This article focuses on whether the “win factor” is possib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sides, and attempts to find a solution through the diaries of Jo Geuk-seon, a Confucian scholar in the Hoseo region in the 17th century, Injae Ilrok, and Yagok Ilrok. It cannot be denied that the friendly life of Confucian scholars and Buddhists presupposes the identity and social superiority of Confucian scholars. However, it is clear that unilateral exploitation, or oppression, occurred between Confucianism and Buddhism, and they often acted reciprocally depending on their interests. Confucian scholars' transfer of knowledge to a Buddhist monk was seen as an interesting scene. This article is an academic perspectiv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nfucianism and Buddhism that differs from the somewhat traditional, viewpoints of respecting Confucianism and suppressing Buddhism.

